

대림 제2주일

기도서 P. 211 A해

1독 (이 사 11, 1-10절)  
 2독 (로 마 15, 4-9절)  
 복음 (마 태 3, 1-12절)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9098)

□ 강론 □



## 지금은 기다림의 때

### 전 대 복 신 부

롬펠로우의 서사시 “에반젤린”을 읽으신 분이면 누구나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젊어서 헤어진 사랑 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퇴색해진 이야기, 그러나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읍니다. 눈물겹도록 극적인 만남이 있었지 않았읍니까. 그녀는 끊임없이 기다린 결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 열차나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입학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공부하며 기다립니다. 취직시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는 어떤 연인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찬스를 기다립니다. 어떤 귀빈의 내방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종교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형태의 기다림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언제나 거기에 적합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열차나 버스가 조금 연착한다고, 입학경쟁이 치열하다고, 취직이 어렵다고, 크리스찬의 종교적인 기다림이 힘들다고 한 걸음 물러선다면 지금까지의 기다림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선 속 옷을 적시는 땀흘림이나 머리를 짓누르는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만남의 약속을 했는데 나와주지 않아 오랜 기다림에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불안전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러나 우리 지금 어떤 분과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분이 오시기 전에 보내신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원수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 결가지를 잘리우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화 “심계”를 촬영하기 전 찰튼헤스톤이 3년동안 다른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 자선사업만을 하면서 심신을 가다듬어 준비했다는 말을 들으셨지요.

지금 이 시기는 기다림의 때입니다. 안으로 걸어 잠그었던 문을 활짝 열고 이웃과 내왕하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에 적합치 않은 나쁜 습관을 적어도 하나라도 고쳐, 다가올 성탄절에 야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로 합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임실 전주교회 주임신부)



## 11월 정의평화

### 기원 미사지향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 있는대로 발언해야 하며, 잘못된 시정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 알의 밀처럼 썩어서 많은 새 생명을 낳아야 하겠읍니다.

그리스도교는 “가난한 이들, 묶인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을 해방하는 인간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복음(루가 4, 18)은 가르칩니다. 현대 세계 자목현장도 “우리들은 결코 사회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비겁한 나머지, 단지 개인주의적 윤리관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자기가 살고있는 사회와 세계의 문제, 그 중에서도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 또는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음으로 고통중에 있는 이웃에 대한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화의 대상은 우리 개인 하나 하나요, 가정, 사회, 국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깊은 반성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신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의 수난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아서 어두움과 싸워 이긴 자만이 죽어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고, 우리의 순교 선열들이 그러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으니,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고 우리 겨레에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매섭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하고 화창한 봄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 숲 정 이 산 채



달리지 못한다  
 돛 정 이 배 는



# 노벨 平和賞과 『良心의 自由』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16년전 포르투갈 대학생 투옥에 자극받고 창설  
人權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적인 대기구로 성장”

노르웨이 국회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10일 세계 정치 법의 석방과 고문 및 사형폐지를 위해 투쟁해온 세계 최대의 인권기구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國際 赦免委員會)을 77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해 보류되었던 76년도 노벨 평화상을 북아일랜드의 8년내전(內戰) 종식을 위해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북아일랜드의 여류 평화운동가 베티 윌리엄즈여사(33)와 마이리트 코리간양(32)에게 수여된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53명의 77년도 평화상 후보자들 가운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선정하면서 이 인권기구는 「인종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투옥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인도적이며 비정치적인 지원을 제공,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찬양했으며, 국제 사면위원회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함과 동시에 1977년을 <良心犯에 바친 해>로 공포했다.

지난 1961년 5월 28일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씨가 정치적 종교적 확실때문에 투옥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국제 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현재 약 15만명의 회원을 갖고 전세계 103개국에서 인권위반에 대해 투쟁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기구로 성장했다.

불과 몇명의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발기된 이 단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국제적인 명성과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차지하기까지 발전한 것은 엠네스티가 그동안 고문과 사형(死刑)제도 및 재판없는 정치범 억류 등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34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엠네스티는 런던에 본부가 있으며 1백여명의 직원과 대규모의 연구부서까지 갖추고 있다.

엠네스티는 매년 약 7천명의 정치범(政治犯)들을 도와주는 동시에 집단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수천명의 죄수들을 대신하여 구조활동을 펴고 있는데, 전형적인 구조방법은 신문 등을 이용한 여론조성과 회원들이 양심법들을 개별적으로 입양(人養)하여 그들의 석방을 전지로 탄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그들의 압력때문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정부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성공사례들을 널리 공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작년까지 모두 약 4만명의 죄수들을 입양하여 그중 9천명을 석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엠네스티는 또 서독의 바더 마인호프 도시 게릴라나 에레 공화국군(IRA) 처럼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석방을 위해서는 운동을 펴지 않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고문을 가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엠네스티는 지난 10년간 고문이 60개국에서 자행됐으며, 작년에만도 40여개국이 고문을 불법화한 유엔 인권 선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엠네스티는 매년 한번씩 국제평의회를 열어 여기서 5인 집행위원회를 뽑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장은 스웨덴의 함마베르크씨이다.

엠네스티의 활동으로 석방된 사람중에는 몇년간 정신 병원에 갇혀있다가 작년 1월에 소련 정부로부터 출국 비자를 받아 서방(西方)으로 건너온 소련의 수학자 테오도르 플루시치를 들 수 있다.

한마디로 엠네스티는 현재 인권분야만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한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國際赦免委) 의장은 10일 국제사면위원회가 14만 5천달러(7천 2백 50만원)의 상금을 전세계에 걸친 그들의 인권 신장(人權伸長)운동을 더욱 확대하는데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의 언론인인 국제사면위원회 의장 토머스 함마베르크씨(35)는 이곳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포함한 우리의 활동이 약한 국가들에서 우리의 조직을 강화하는데 노벨 평화상금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벨상이 국제사면위원회에 수여된 것은 더욱 많은 공식기관들이 엠네스티의 활동이 중요함을 인식한 한 예라고 말했다. 함마베르크 의장은 또 엠네스티의 활동방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시인했는데 그는 「아르헨티나와 유엔의 그밖의 국가들이 우리가 그들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활동을 비판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소련, 네팔 등지에서 활동해온 엠네스티 회원들은 정치범을 위한 그들의 활동때문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상 週刊朝鮮 77. 10. 23일자 10페이지에서 옮김)

※(註) 한국 위원회는 72년 3월 28일 저명한 종교인, 법조인, 문필인, 교수 등 각계 인사 27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되었다. 국제 엠네스티 위원회 산하 지부로서는 29번째의 정회원 지부이다.

※ 가입절차...기초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가입금 2천원 납부해야. (회비...연액 5천원이상(보통 회원), 연액 2만원 이상(유지회원), 10만원(중신 유지회원))

※ 엠네스티는 국제연합, 유네스코, 유럽의회 및 아메리카 국가 기구의 자문단체임.

☆고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 이리경문학원

◎이리역앞(서울 신락은행4층) ☎ 5943

- 검정 고시반(78년4월, 8월대비 대입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설계·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3-1449(야간)

□ 성서교실 26 □



# 유다서 개관

송 영 환

저자와 수신인 : 신약 성서에는 5인의 유다가 나오는데 본서의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1)라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다마스쿠스의 유다(사도 9, 11)나 유다 바르사바(사도 15, 22)나 유다 이스가리옷(마태 10, 4)은 본서 저자와 관계가 없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루가 6, 16) 즉 사도 타대오(마르 3, 18)와 예수의 형제 유다(마태 13, 55)가 저자의 문체에 관계된다. 초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양자를 동일시 했으나 오늘날에는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보고 이 서간의 저자를 후자 즉 주님의 형제(갈라 1, 19)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였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한다. 하지만 유다가 사실상 이 편지의 저자인가 하는 점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이 서간의 회람어를 보면 유대인인 유다가 썼다고 볼 수 없으며, 17절에는 사도 시대가 끝난 것으로 되어 유다가 그때까지 살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학계에서는 유다서의 저자를 어느 무명작가로 본다. 수신인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이 불림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이다.

저술연대와 장소 : 본서가 씌여진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저자가 사도들을 회상한 점(17)과 베드로 후서(2, 1-18)에 인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80-90년경으로 볼 수 있다. 저술 장소로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던 지방(로마?)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내용과 목적 : 유다서 저자는 원래 신자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신앙에 대한 논문을 쓰려 했었는데 뜻밖에 이단자들이 교회회를 위협함으로써(3절) 신앙에 대한 해설보다 신앙을 옹호할 필요가 생겼다. 이단자들은 그노시스(靈智主義) 도당들이며 그들은 꿈을 통해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고 떠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4) 하느님의 창조 질서(16) 및 하나이요 진실된 하느님마저(8, 25) 부인했다. 유다서는 이러한 그노시스의 이단설을 공박하는 단편이다. 바울로와 요한 복음사가 그노시스의 사상을 연구해서 그 오류를 신학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이단을 분쇄하려고 했는데 유다서의 저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단자들의 비윤리적, 저속한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이단을 극복하려 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의 확실한 교리와 진전한 도덕의 기초를 뒤흔드는(4) 그들을 경고하여 수신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비극(민수 13, 26-14; 29)을 기억케 하고(5이하) 이단자들이 받을 심판(8-13)과 이단자들에 대한 예언의 경고(14-16)를 서술하면서, 신자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잊지 말것을 부탁하고(17이하) 신앙 규범을 잘 지키도록 종용한다(20). 결국 유다서의 저자는 그노시스의 사상이 교회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그노시즘을 공박하여 참된 복음을 옹호했다.

## 요십이 (227) 김병호



□ 주산반 · 부기반 · 경리실무반 □

### 삼일주산경리학원

수시접수(국교, 중고등, 일반)

정진경 (분도)

☎ ② 1462

병무청 ← 구법원 중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수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결 (축) 혼

전 종근씨의 3남 창영(원선시오)  
우 경호씨의 장녀 영감(크리스티나)  
일시 : 1977년 12월 11일 오후 1시  
장소 :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성당  
주례 : 이 응 협 신부

□ 신사 · 숙녀복, 아동복 다량구비 □

### 천사양품

박 협 주(메세사)

☎ ② 7055번

남부 시장 내 중간지점

난방시설은

###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③ 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 결 (축) 혼

김 응옥씨 장남 영배(베드로)  
이 철직씨 장녀 정숙(마리아)  
일시 : 1977년 12월 7일 정오  
장소 : 전동 천주교회  
주례 : 김 환 철(스페라노)신부

◇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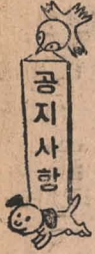
☎ 9000, 9001, 9002, 9003번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이리 참사에 대한 성금, 감사합니다  
 정읍 성심유치원 (6,000원), 상광 (9,840원), 황등 (48,000원), 순창 (6,130원), 울산 천주교회 (10만원 의무 2상자), 울산 천주교회 (염포 아파트 이아가다 1만원, 부인회월동 1만원, 프란치스코 회원 모세 2천원), 울산 현대 자동차회사 (부인회원, 레지오 단원 각 1만원), 함안 천주교회 (25,000원)

1. **농민회 교육** (7일 <수> 오후 2시-10일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회비 2,500원...교부비 편도요금 별도 지급해 드립니다)
  - ① 내용...교회와 농촌문제, 농업문제의 본질, 효소농법, 쌀생산비 조사 의의와 분석보고, 부락개발 등
  - ② 농촌 분당이나 공소의 뜻있는 형제들의 많은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홀인 상담일** (6일 <화>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3. **성인 친선시오 아 바오로회 전북지구 이사회 창립** (11월 26-27일)
  - 회장 김충근(신태인), 부회장 이정영(남원) · 김만수(신태인) · 김용(수류), 총무 박영일(신태인)
  - 회계 최승희(신태인), 홍보 서기원(전주 K.B.S), 지도신부 이종원(신태인)
4. **77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 축하 엠베스티** (국제 사면위원회 **강연회** (5일 <월> 오후 7시, 가톨릭 센터)
  - 주제 및 강사...① 편견과 싸우는 엠베스티(윤현 박사-전남 순천 출생, 엠베스티 전무이사)
  - ② 양심 수인(한승현 前 변호사-전북 진안출생, 전북 법대졸업, 엠베스티 이사)

※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엠베스티 강연회 끝난 후에 모인)  
 5. **제2지구 웅변대회 수상자 명단**(초등부...특상 임명숙<대야>, 우수상 표명순<팔마>, 중등부...특상 박미순<둔율동>, 고등부...특상 김미나<월명동>, 우수상 차정희<둔율동> 일반부...특상 조상호<둔율동>, 우수상 김행곤<팔마>)  
 6. **전동성당 루르드 동굴 성모상 축성식** (8일 오후 2시, 김주교님 미사 집전)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프란치스코 3회: 4일 오후 1시반, 강당
  2. 영세자 합동교리: 5일 <월>-7일 <수>밤 8시, 강당
  3. 영세자 구두시험: 8일 <목>-9일 <금>밤 8시, 강당
  4. 영세일: 10일 <토> 오후 7시
  5. 미사차례 때 성경, 성가집 지침바람
- 지난주 봉헌금: 118,856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홍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8시, 회장단·각 위원장님 꼭 참석 바람
  2. **공소판공**, 각 공소 회장님 준비 바랍니다  
 왕정리-5일 <월>오전 10시, 신교리-6일 <화> 오후 2시  
 신원리-7일 <수> 오전 10시, 다리리-8일 <목> 정오  
 황윤리-9일 <금> 오후 2시
  3. **원죄 없으신 성모 대축일** (8일) 미사: 오전 10시, 저녁 미사없음
  4. **사도회 주관 반상회 실시**: 중노 1가-5·6일 남노송동-7·8일, 중노 2가-9·12일, 인후동-13·14일
- **축결혼!** 노광식(다두)군, 위 효자양, 6일 정오 이규봉군, 염동희(베로니카)양, 11일 정오
- 지난주 봉헌금: 44,495원

**(덕진)** 전화 ⑥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신부 김용환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확대회의**: 공식 미사후 각 반장, 구역장, 공소회장 필히 참석 바람
  2. **청년회 성가연습**: 주일 저녁 7시반
  3. **18일부터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저녁 7시반, 어머니미사→<금> 10시반, 주일 공식미사→10시, 저녁→7시반, 어린이 미사→주일 9시
  4. **판공일정**: 6·7일(내동공소), 9·10일(동산공소), 12·13일(전당리 공소), 15·16일(미산공소), 17·18일(직장인, 학생), 19일(팔부, 송전), 20일(덕진) 21일(금암), 22일(병자), 23일(누락자)
- ※ 판공성사일 꼭 지켜주세요
5. **미납된 봉헌금, 신축헌금** 속히 납부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365원

**(복자)** 전화 ⑥5238 주임 신부 심송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5일-송골라라, 6일-허일리사벳, 7일-유요셉, 8일-제아베스, 9일-김화영, 10일-송루시아, 11일-오아가다
  2.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김수결 형제덕
- **축결혼!** 안정식 군, 김정년(마리아)양, 7일 11시 황인택 군, 임정선(황뚜루다)양, 10일 오후1시반
- 지난주 봉헌금: 47,0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10시 미사후
  2. **반상회**: 1반-6일, 2반-7일, 3반-8일, 4반-9일  
 ※ 성당에서 하오니 꼭 참석 바람
  3. **성탄영세자 특별교리**: 8일 오후 2시~22일  
 ※ 예비신자 적극 참석 요망
  4. **성탄 영세식**: 23일 오후 2시
  5. **조속한 시일내 밀린교무금 완납바람**
  6. **저녁미사 시간변경** (25.로)
- 지난주 봉헌금: 41,125원

**(숲정리)**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전종근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확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크리스마스 카드 전시회**: 11~18일, 본당에서 학생회 주최
  3. **짧은이 레지오 모임에** 참석 바랍니다
  4. **봉헌금 완납바랍니다**
- **축결혼!** 사도회장 전종근 씨의 3남 전장호(원선생 오)군과 우경호씨의 장녀 우영강(크리스티나)양 11일 오후 1시, 춘천시 죽림동 성당에서
- 지난주 봉헌금: 93,71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사도회 총회 의결 사항**
    - ☆77년 예산 15,521,980원, 결산 11,542,960원 (교구비 미납액 2,050,000원의 기타항목)
    - ☆78년 예산 (3개월 추경포함) 15개월 24,385,520원 (3개월 5,941,150원, 12개월 18,444,000원)
    - ☆임원선거: 사도회장-유석중, 부회장-안득수, 이종두, 감사-황희상, 이동수
  2. **루르드 동굴 성모 축성**: 8일 오후 2시, 김주교님 미사
  3. **성화회**: 10시 미사후
  4. **제 3차 목상회**: 10~11일 오후 3시반부터, 유치원강단, 신심단체회원
  5. **중고생 목상회**: 오늘 오전9~오후 4시, 파티마 성당
  6. **유아세례**: 오후 2시 미사후
  7. **가정심방**: 동·서완산동
- ※ **새성당 완납자명단**(풍남동): 유회진, 최덕순, 이선경, 김은순, 황부계, 안득수, 이관형, 오남래, 김남수, 태복래, 양영순, 조미령, 김연비, 김한숙, 한규화, 이정희, 박영래, 윤원준, 임기주, 김진숙, 유완태, 박종식, 김호준, 최남순, 정삼태, 차명수, 유영순, 한수우, 김만수, 박양래, 강희선, 안종길, 임인남, 정인성, 이병수, 박광기, 백택세, 정봉순, 전정서, 박금옥
- **지난주 봉헌금**: 115,330원